

■ 선진농업 현장 ④ 포천백운한우 영농법인 대표이사 김인필 ■

# 품종개량·고급육 육성·브랜드화 추진

## 세계속의 한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쇠고기 생산



안전한 최고급 1등급을 고집하는 포천백운한우를 소비자의 식탁에 신선하게 전달하고 있는 포천백운한우 영농법인 김인필(60·사진) 대표이사는 포천시 영북면 아미2리 515-2번지일대에서 한창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포천백운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한창목장 전경.

깨끗한 환경, 안전한 고급육, 최고의 경영'을 목표로 1997년에 한창목장의 문을 열었다. 김 대표이사는 "한우는 지구상에서 한민족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며 국민이 좋아하는 쇠고기, 곱창, 갈비탕에는 한우고기가 들어가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

김 대표이사는 한우사육을 하되 철저한 품종개량과 거세 고급육 육성, 브랜드화 등 3원칙을 고수하여 경쟁력을 높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소는 일꾼의 역할을 했고 살림집천으로 학자금 마련 등에 이용했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한우는 고급육으로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철저한 개량이 우선시 되고 있다.

한창목장에는 240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다. 조사료개발과 고급육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송아지가 태어난후 성장하여 30개월 만에 출하된다. 송아지 1마리를 구입하려면 240만원이 들지만 새끼를 낳게 하면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90~140만원의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2년 주기로

한우파동이 온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오는 2007년이나 2008년에 한우파동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한우사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이사는 32년 전부터 사료업계에 종사했으며 양계와 양돈사업을 실시하는 등 축산에 남다른 관심과 연구 끝에 한우사업에 뛰어들었다. 김 대표이사가 연구 끝에 사육환경을 햇빛이 잘 들도록 하고 여름철에는 고온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했다.

실제로 축사는 마른 부분이 대부분이고 물이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당 사용면적은 5평 이상으로 해주면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며 바닥 또한 햇빛이 들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김 대표이사는 "생산자를 소비자를 책임져야 한다"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맛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백운(白雲)은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에 피어오르는 새털구름과 같은 고기를 연상하여 지은 이름이다.

현재 포천백운한우 영농법인은 21개 농가가 참여해 1천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백운한우는 전량 벽제갈비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하다. 월 40~50두를 납품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육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지가 마땅치 않다. 부동산

가격이 파주 필립스 부지 보상이 후 급격하여 상승해 평당 4만원에서 평당 7~8만원을 넘어섰고 있어 공동사육장 부지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현재 포천백운한우 영농법인이 공동사육장을 만들어 차별화전략을 추진한다면 소 1마리당 20~30만원의 추가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대표이사는 우리정부에 대해 "약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를 바란다"며 "축산업을 농업으로 보는 시각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포천백운한우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축산업을 위한 축사는 건축비와 도시계획비, 환경보호비 등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대표이사는 "포천백운한우는 큰 일교차와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소비자에게서 사람 받는 쇠고기를 만들어 세계 속의 한우,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포천백운한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육기반 확충으로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맛의 차별화 전략수립, 지역의 유명 술과 인산제품 부산물 사료와 추진, 국내 유명 유통업체와 유통체계 수립,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출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주)거산유통

## 한수이북 최고를 자랑하는 음료유통의 메카



대표이사 조종우

경기북부의 광범위한 지역과 탄탄한 유통망을 주축으로 음료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거산유통(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242-6 대표이사: 조종우)은 "인간존중, 고객우선, 인화단결, 근면성실, 가치창조"를 경영정신으로 삼고 지역 음료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996년 개업하여 5년 전에 (주)거산유통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며 지원해준 제품에 대해선 끝까지 A/S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제품을 신속,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본이고 고객과 거래처를 위해 시간 엄수와 제품 하나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최고의 성수기인 음료시장이 예년에 비해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기간 진행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예전보다 턱없이 떨어진 매출이 안타깝다는 조 대표는 "치수는 부동산, 내수부진, 고유가로 인해 현재 기업체 대부분은 심각한 이종고에 처해있으며 더욱이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공장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기업들이 자금을 공장을 짓는데 모두 사용한다면 무엇보다 설비도입과 생산연구를 할 것인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업체들다운 대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입지이다"며 "포천에서 가산면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부도나 폐쇄된 공장이 많아 기업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파생적으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등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현 심정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탄탄한 유통망 구축과 조 대표의 노

## 체육행사, आय회, 바자회, 경조사에 납품

### 박리다매 경영, 가격 다운 경쟁력 제고

마케팅 전략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주)거산유통은 코카콜라,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서식품, 동원 F&B, 가야음료, (주)관권종합식품, (주)거산 음료 등 음료시장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하는 업체들의 양질의 제품을 취급, 공급하고 있다.

현재 (주)거산유통은 음식점, 편의점, 업소, 게임방, 노래방, 사우나, 불리장 등 음료를 취급하는 업체 10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하며 음료유통의 대표주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창업초기부터 애오라지 "성실한"을 주무기로 거래처와 고객들을 상대로 신뢰를 쌓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조 대표의 성실한 때문인지 거래처나 고객들은 서로를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며 상호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또한 조 대표이사는 유통마진율이 현저하게 적은 음료사업이기 때문에 고객과 거래처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거래처와 고객들을 상대로 잠비지민 만큼은 아끼지 않고 냉장고나 자판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

하우로 인해 (주)거산유통은 현상유지 정도는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타 음료유통업체보다 폐적이거나 넓은 물류창고가 있어 다량구매시도 많은 양의 음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주)거산유통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먼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이유인즉 1000여 곳이 넘는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제품의 회전율이 빠르며 박리다매식 경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대표는 기업체들의 आय회, 지역 내 체육행사나 바자회,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다량 확보되어 있는 만큼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신속하게 배달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조 대표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의식과 경영마인드가 함께 한 (주)거산유통은 현존에 있는 음료유통업체의 불패신화를 이루며 한 계단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031-543-688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경기북부의 광범위한 지역과 탄탄한 유통망을 주축으로 음료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거산유통은 '인간존중, 고객우선, 인화단결, 근면성실, 가치창조'를 경영정신으로 삼고 지역 음료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수출유망상품 영문종합카탈로그 제작

해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각 국 무역센터에 배포



포천시가 제작한 수출유망상품 영문종합카탈로그 POCHEON EXPORT 표지.

POCHEON EXPORT'라는 제호를 단 수출유망상품 영문종합카탈로그에는 포천시 소재 101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이 수록돼 있으며 이번에 모두 2천부가 제작됐다.

포천시는 이 밖에도 75개국 190만 명의 바이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KOMPASS GROUP의 한국센터인 (주)한국컴퍼니를 통해 카탈로그 내용을 1년 간 온라인 등에 게시해 중소기업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2005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8월 31일까지 납부

포천시는 과세기준일인 2005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2005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개인균등할 5만5천994건, 개인사업자 균등할 5천711건, 법인균등할 1천783건 등 총 6만3천488건이다.

납부금액은 ▶개인 세대주는 5천500원 ▶포천시에 사무소나 사업소

## 포천시, '전자계약' 우수기관 선정

포천시가 조달청으로부터 전국 4천300여 공공기관 중 2005년도 상반기 전자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포천시가 2005년 1월부터 시설공사·용역 발주와 관련해, 입찰→계약→사업이행→대가 지급에 이르는 계약사무의 모든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계약사무처리 기관으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포천시는 전자계약 제도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매번 계약 시마다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자격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했다.

또 계약에서 시공, 대금청구에 이르는 사업이행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보류 5~8회 발주기관을 방문했으니 이를 일괄 지양하고, 포천시와 업체간 모든 사무를 온라인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혁신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량은 늘었지만 계약대상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손실은 대폭 감소했다. 또 업체와의 비대면(非對面) 및 공개적 사무처리로 계약업무 투명한 수행함으로써, 업체들의 호응 속에 포천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를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원 ▶포천시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다.

포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과 농협, 농협텔레뱅킹 (1588-2100), 포천시

청 홈페이지 (www.pcs21.net 지방세 전자수납 click),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giro.co.kr) 등을 이용해 간단한 8월 31일 이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았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1~4)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1.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①

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대책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가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예규]

-부부간에는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청소작업 중 밟고 있던 개구부 합판 전도

(주)OO종합건설 사회복지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1층 채광을 위한 천장개구부 측면에 위치한 강망 복도 유리창을 청소 작업 중 천장개구부 상에 덮여놓은 합판을 밟는 순간 전도되면서 추락하여(4.5m)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불량으로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나 개구부에 합판을 덮어놓고 미고정 및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또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안

전도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